

女子中高等学生들의 食品營養知識 및 態度에 関한 調査

鄭 文 姬 *

李 明 淑 **

目

次

I. 緒 論

II. 調査対象 및 方法

III. 調査成績 및 考案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英文抄錄

I. 緒 論

學生들의 健康은 학교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基本的인 條件이다. 學校保健教育은 學生의 健康維持・増進에 가장 중요하고 効果있는 接近方法으로써 學生들 스스로 健康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教育活動이다. 이와같이 學校保健 教育은 학문중심이라기 보다는 生活中心의 교과적 性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教育目標은 단순한 健康정보나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實踐 및 習性化 또는 生活化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學生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은 學生의 發達段階에 적합하여야 하고, 실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學生의 興味나 要求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健康에 대한 要求나 保健問題를 學生이나, 가정, 지역사회에 대해서 고차에 보고 保健教育問題에 反映시킬 必要가 있다.¹⁾²⁾

신공범³⁾ 등은 여학생의 건강에 대한 흥미영역 중 가장 유의한 영역이 營養과 疾病管理에 관한 영역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著者들이 지도하고 있는看護學生들의 學校保健 臨床教育現場에서도 여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은 건강문제를 열거한 사례 중에

제 1 위가 28.6%인 구강보건이고 제 2 위가 20.2%로 營養에 관한 것이었던 것은 이들이 요구를 나타내주는 資料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學生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健康情報가 學校保健教育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女子中高等學生을 대상으로 食品知識 및 태도가 어느 程度인지 알아본다는 것은 學生들이 필요로 하는 保健教育內容을 선정할 수 있는 基礎資料가 되므로 意義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들은 情緒의으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고, 身體的으로는 성장과 발육이 매우 왕성한 시기이므로 營養 要求가 크며, 장차는 成長하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主婦가 될 것이므로, 學校를 통하여 家庭과 地域社會의 健康을 増進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本 調査에서는 女學生들의 食品知識과 態度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의 健康生活 實踐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는 앞으로의 課題가 될 것이다.

이 分野의 研究는 거의 전무하나, 李貞遠⁴⁾ 등과, 曹

* 漢陽醫大 看護學科

** 서울醫大 看護學科

1) 洛源, 公衆保健과 保健教育, 春潮社, 1969.

2) 金命鎬, 健康에 関한 社會教育의 現況과 課題, 大韓保健協會誌, 4(1): 4-9, 1978.

3)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1978年度 學校保健.

4) 신공범·이광자, 일부 농촌중학생의 건강흥미분석-수동중학교 건강교육내용 개발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10(1): 21-26, 1980.

5) 李貞遠·李壽美, 地域社會 營養教育媒體의 評價, 국민권감독본, "건강을 지킴시다"에 대하여, 大韓保健協會誌, 4(1): 17-20, 1978.

英⁶⁾, 朴明洵⁷⁾ 등의 研究에서 枝葉의 이나마 지역사회의 모성을 대상으로 食品營養知識 및 閱歷에 關해 다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 調査對象 및 方法

女子中學校 1학년에서부터 女子高等學校 3학년에 이르기까지 各學年別로 서울의 1개교에서 3학급씩 경기도 농촌의 1개교에서 2학급씩을 양호 교사가

임의로 선정하여 준비된 설문지에 의하여 조사 하였다.

分析資料로는 96.6%의 회수된 설문지 1689매가 활용되었으며 나머지는 회수되지 못하였거나 충실히 기재되지 않은 자료로 서울에서 34매 농촌에서 25매로 모두 59매이었다.

調査期間은 1980. 7. 18. ~ 7. 19. 양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이 된 여학생들의 學年別, 年齡別, 地域別分佈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령별 학년별 지역별 조사대상자 분포

연령	지역	농 촌						서 울						총 계		
		중			고			중			고			농촌	서울	계(%)
		1	2	3	1	2	3	1	2	3	1	2	3			
11		8	-	-	-	-	-	19	1	-	-	-	-	8	20	28(1.7)
12		55	9	1	-	-	-	156	10	1	-	-	-	65	167	232(13.7)
13		39	63	12	1	-	-	64	70	12	-	-	-	115	146	261(15.5)
14		7	43	76	17	2	-	9	43	111	12	1	-	145	176	321(19.0)
15		1	10	31	45	11	-	3	4	70	93	18	-	98	188	286(16.9)
16		-	1	8	23	58	-	-	2	3	54	113	7	90	179	269(15.9)
17		-	-	-	1	19	35	-	-	-	1	42	118	55	161	216(12.8)
18		-	-	-	-	1	27	-	-	-	-	2	39	28	41	79(4.1)
19		-	-	-	-	-	4	-	-	-	-	1	2	4	3	7(0.4)
계		110	126	128	87	91	66	251	130	197	160	177	166	608	1081	1689(100.0)

나이는 조사대상자가 기록한 生年月日을 토대로 1980. 7. 1을 기준으로 하여 만연령으로 算出하고 分析에 利用하였다.

설문된 사용된 食品知識에 關한 25문항은 미국의 플로리다주 보건국의 관계자⁸⁾ (Florida State Board of Health)들이 마련한 40문항의 식품 지식에 관한 正誤(True-False test)檢査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認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고른 것이며 本調査가 실시되기 1주일전에 본 조사대상자와는 관계없는 여자중고등학생 12명을 각학년별로 2명씩 저자들이 임의로 골라 事前調査함으로써 補正한 것이다.

分析方法은 上記한 25문항의 食品知識에 關해 調査對象者에게 묻고 “예”라고 확실하게 答辯한 문항

의 合을 대상자의 나이와 학년별로 分類하여 電算化處理 (Computed Analysis)하였다.

III. 調査成績 및 考案

前述한 食品營養의 知識 및 態度에 關한 25개문항은 그 内容이나 性格에 따라서 (1)체중조절에 관한 것 7문항, (2)비타민 및 채소에 관한 것 6문항, (3)고단백식품에 대한 것 7문항, (4)기타 5문항으로 区分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각 문항과 학년별로 조사대상자들이 틀린 答辯을 한 頻度에 따라서 製表한 것이 <표 2>가 된다.

일반적으로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食品營養에 對해 女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知識

6) 曹英, 地域社會營養教育媒體의 評價, —슬라이드 “營養과 健康에 對하여”—, 大韓保健協會誌, 4(1): 29-37, 1978.
 7) 朴明洵 外 2人, 農村保健事業地域의 어린이 營養實態調査, 大韓保健協會誌, 6(1): 109-121, 1980.
 8) 朴明洵 外 3人, 一部 江原道 農村就學前 어린이의 營養調査, 大韓保健協會誌, 5(2): 55-71, 1979.
 9) Byrd, Health, Saunders, 4th ed., pp. 329-339, 1960.

〈표 2〉 여자중고등학생들의 학년별 문항별 식품에 대한 그릇된 지식 및 태도풍

중·고 별	여 자 중					
	1 학 년			2 학 년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식품에 대한 25개 문항						
(1)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	702	27.8	20.5	548	30.6	21.5
1. 비만증은 선천적인 것이다.	77	21.3	2.2	55	21.5	2.2
2. 저열량식은 체중 감소식으로 필요하다.	141	39.1	4.1	110	43.0	4.3
3. 체중 감소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	137	38.0	4.0	151	59.0	5.9
4. 고기는 살찌는 음식이다.	172	47.0	5.0	114	44.5	4.5
5. 체중 조절약을 먹으면 식품에 대한 조절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다.	81	2.4	2.4	57	22.7	2.2
6. 체중을 줄이려면 아침을 거르는 것이 가장 좋다.	43	11.9	1.3	30	11.7	1.2
7. 체중을 줄이려고 과자나 청량음료로 점심을 드는것은 매우 좋다.	51	14.1	1.5	31	12.1	1.2
(2) 비타민 채소에 관한 문항	1106	51.1	32.2	795	51.8	31.2
8.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	298	82.6	8.7	210	82.0	8.2
9. 비타민은 누구나 다 약으로 된 재물을 먹어야 된다.	33	9.1	1.0	19	7.4	0.7
10. 시금치에는 고농도의 비타민과 무기염류가 많다.	293	81.2	8.5	203	79.3	8.0
11. 야채즙으로 먹는 것이 생야채를 먹는 것보다 몸에 더 좋다.	174	48.2	5.1	93	36.3	3.7
12. 과일이나 야채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190	52.6	5.5	92	35.9	3.6
13. 채소에 있는 영양소는 조리과정 중에 파괴된다.	118	32.7	3.4	178	69.5	7.0
(3) 고단백식품에 관한 문항	887	34.8	25.9	657	36.7	25.8
14. 어른에게는 우유에 대한 요구가 없다.	80	22.2	2.3	77	30.1	3.0
15. 우유이 적은 살균병은 우유에 있는 영양소를 파괴하게 된다.	133	36.8	3.9	81	31.6	3.2
16. 요구르트는 우유보다 영양가가 크다.	73	20.2	2.1	66	25.8	2.6
17. 갈색계란에는 흰자가 월등히 많다.	157	43.5	4.6	87	34.0	3.4
18. 생계란으로 먹는 것이 전계란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적이다.	272	75.4	7.9	169	66.0	6.6
19. 생선은 두뇌가 좋아지는 식품이다.	63	17.5	1.8	101	39.5	4.0
20. 살짝 익힌 고기가 잘 익힌 고기보다 건강에 더 좋다.	109	30.2	3.2	76	29.7	3.0
(4) 기타 일반 문항	736	40.8	21.5	547	42.7	21.5
21. 화학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282	78.1	8.2	209	81.6	8.2
22. 가공식품류(햄, 치즈 등)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염류가 적다.	151	41.8	4.4	127	49.6	5.0
23. 토스트는 그냥 식빵보다 열량을 적게 낸다.	104	28.8	3.0	42	16.4	1.6
24. 건강유지를 위해 보약은 꼭 먹어야 된다.	31	8.6	0.9	21	8.2	0.8
25. 누구나 다 아침식사에는 뜨거운 국을 먹을 필요가 있다.	168	46.5	4.9	148	57.8	5.8
대상자수 (그릇된 답변의 총계)	361	(3431)		256	(2547)	

주 : *응답율 = $\frac{\text{문항별 오답수}}{\text{대상자수}} \times 100 (100\%)$.

학 생						여 자 고 등 학 생											
3 학 년			학 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합 계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100	30.8	22.5	1950	29.6	21.4	562	32.5	24.7	653	34.8	26.5	26.5	30.2	26.3	1706	32.6	25.8
43	13.2	1.4	175	18.6	1.9	47	19.0	2.1	60	22.4	2.4	60	25.9	3.2	167	22.4	2.5
53	47.1	4.9	404	42.9	4.4	158	64.0	7.0	172	64.3	7.0	147	63.4	7.9	447	63.9	7.2
207	63.7	6.6	495	52.5	5.4	145	58.7	6.4	200	74.6	8.1	164	70.7	8.8	509	68.1	7.7
134	41.2	4.3	420	44.6	4.6	134	54.3	5.9	121	45.1	4.9	70	30.2	3.7	325	43.5	4.9
68	20.9	2.2	206	21.9	2.3	36	14.6	1.6	35	13.1	1.4	28	12.1	1.5	99	13.3	1.5
26	8.0	0.8	99	10.5	1.1	14	5.7	0.6	18	6.7	0.7	12	5.2	0.6	44	5.9	0.7
69	21.2	2.2	151	16.0	1.7	28	11.3	1.2	47	17.5	1.9	10	4.3	0.5	85	11.4	1.3
959	48.2	30.8	2860	50.6	31.5	731	49.3	32.2	768	47.8	31.1	542	38.9	29.0	2041	45.5	30.9
244	75.1	7.8	752	79.8	8.3	183	74.1	8.1	186	69.4	7.5	84	36.2	4.5	453	60.6	6.9
12	3.7	0.4	64	6.8	0.7	7	2.8	0.3	2	0.7	0.1	5	2.2	0.3	14	1.9	0.2
256	78.8	8.2	752	79.8	8.3	216	87.4	9.5	233	86.9	9.4	197	84.9	10.5	646	86.5	9.8
112	34.5	3.6	379	40.2	4.2	80	32.4	3.5	83	31.0	3.4	67	28.9	3.6	230	30.8	3.5
88	27.1	2.8	370	39.3	4.1	54	21.9	2.4	60	22.4	2.4	36	15.5	1.9	150	20.1	2.3
247	76.0	7.9	543	57.6	6.0	191	77.3	8.4	204	76.1	8.3	153	65.9	8.2	548	73.4	8.3
787	34.6	25.3	2331	35.4	25.6	510	29.5	22.4	557	29.7	22.6	464	28.6	24.8	1531	29.3	19.1
74	22.8	2.4	231	24.5	2.5	20	8.1	0.9	41	15.3	1.7	26	11.2	1.4	87	11.6	1.3
105	32.3	3.4	319	33.9	3.5	44	17.8	1.9	42	15.7	1.7	26	11.2	1.4	112	15.0	1.7
72	22.2	2.3	211	22.4	2.3	34	13.8	1.5	44	16.4	1.8	38	16.4	2.0	116	15.5	1.8
86	26.5	2.8	330	35.0	3.6	39	15.8	1.7	45	16.8	1.8	22	9.5	1.2	106	14.2	1.6
210	64.6	6.7	651	7.2	164	66.4	66.4	7.2	77	66.0	7.2	113	48.7	6.0	454	60.8	6.9
124	38.2	4.0	288	30.6	3.2	121	49.0	5.3	110	41.0	4.5	153	65.9	8.2	384	51.4	5.8
116	35.7	3.7	301	32.0	3.3	88	35.6	3.9	98	36.6	4.0	86	37.1	4.6	272	36.4	4.1
668	41.1	21.5	1951	41.4	21.5	470	38.1	20.7	490	36.6	19.9	373	32.2	19.9	1333	35.7	20.2
289	88.9	9.3	780	82.8	8.6	223	90.3	9.8	250	93.3	10.1	211	90.9	11.3	684	91.6	10.3
138	42.5	4.4	416	44.2	4.6	121	49.0	5.3	114	42.5	44.6	78	33.6	4.2	313	41.9	4.7
34	10.5	1.1	180	19.1	2.0	15	6.1	0.7	21	7.8	0.9	18	7.8	1.0	54	7.2	0.8
23	7.1	0.7	75	8.0	0.8	9	3.6	0.4	13	4.9	0.5	8	3.4	0.4	30	4.0	0.5
184	56.6	5.9	500	53.1	5.5	102	41.3	4.5	92	34.3	3.7	58	25.0	3.1	252	33.7	3.8
325 (3114)			942 (9092)			247 (2273)			268 (2468)			232 (1870)			747 (6611)		

$$**오답율 = \frac{\text{문항별 오답수}}{\text{그릇된 답변의 총계}} \times 100 (\%)$$

및 態도의 정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減少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야채주스로 먹는 것이 생야채를 먹는 것보다 몸에 더 좋다”(最高 48.4%에서最低 28.9%)나 “야채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最高 52.6%에서最低 15.5%)와 같은 비타민 및 채소에 관한 문항에서 이러한 減少傾向이 두드러졌는데, 한 예를 보면 여자중학교 1년이 보이고 있는 틀린 정도는 평균 51.1%이던 것이 여자고등학교 3년의 경우 38.9%로 평균 12.2% 정도가 적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타민 및 채소에 관한 문항은 다른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이나 고단백식품에 대한 문항, 또는 기타 문항에 비해 비교적 그 틀린 빈도가 많은 문항이기도 하다. 이것은 1689명의 전체 女學生들이 25의 각문항별로 1,000명이상 틀린 문항을 골라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단독문항을 재표한 <표 3>에서 제 2 위, 3 위 및 5 위가 비타민 및 채소에 관한 문항으로 전체 15703의 틀린 답변의 총계 중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있다. 본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比較言及이 不可能하나 地域社会 主婦를

対象으로 한 朴明洵¹⁰⁾ 등의 연구에서 열량이나 단백질보다 비타민 및 채소에 관한 지식이 부족되고 있다 指摘이나 崔범석¹²⁾등과 韓仁圭¹³⁾의 報告에서 우리나라 食品消費構造가 畜산물지출과 채소·과일 등의 消費가 크게 增加하고 있는 傾向이라는 事實은 위와 같은 結果를 說明해줄 수 있는 資料이다.

이와같은 樣相과는 달리 學年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식품영양에 관한 지식 및 태도의 틀린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문항은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이다.

女子中學校 1년의 평균 틀린 빈도는 가장 낮은 27.8%인 것에 비교하면 가장 틀린 빈도가 많은 女子高等學校 2년의 경우는 34.8%로 평균 7%정도가 더 많이 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독문항으로는 “저열량식은 체중감소식으로 필요하다”와 “체중감소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의 문항이 女子中學校 1년의 경우 40%를 전후하여 틀리던 것에 비해 女子高等學校 2,3년이 되면 60~70%以上の 틀린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女子中學生과 高等學生의 差異가 비교적 큰 문항이기도 하다.

<표 3> 여자중고등학생들의 식품지식에 대한 주요 그릇된 문항

순위	주요 그릇된 문항	오답수	응답율*	오답율**
1.	화학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1464	86.7	9.3
2.	시금치에는 고농도의 비타민과 무기염류가 많다.	1398	82.8	8.9
3.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	1205	71.3	7.7
4.	생계란으로 먹는 것이 전계란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적이다.	1105	65.4	7.1
5.	채소에 있는 영양소는 조리과정에 파괴된다.	1091	64.6	6.9
6.	체중감소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	1004	59.4	6.4
	총 조사대상자 및 25개문항에 관한 그릇된 답변의 총계	1,689	157.03	15,703

$$* \text{응답율} = \frac{\text{문항별 오답수}}{\text{대상자수}} \times 100(\%)$$

$$** \text{오답율} = \frac{\text{문항별 오답수}}{\text{그릇된 답변의 총계}} \times 100(\%)$$

반면에 學年別로 별다른 差異없이 많이 틀리고 있는 단독문항은 “화학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와 “시금치에는 고농도의 비타민과 무기염류가 많다”와 같은 문항으로 평균 80%를 넘으며 <표 3>에서처럼 제 1 위 및 제 2 위로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잘못 認知하고 있는 문항이기도 하다.

그밖에 단독문항으로써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으

로 올라갈수록 점차 적어지다가 여고 3년이 되면 매우 크게 틀린빈도가 적어지는 문항은 “생계란으로 먹는 것이 전계란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적이다”로 女子中學校 1년에서 틀린빈도는 75.4%이던 것이 女子高等學校 2년이 되면 66.0%로 줄고 女高 3년이 되면 48.7%로 크게 적어지거나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로 전자와 마찬가지로 82.6

10) 崔범석·신영두, 우리나라 食品消費變化에 대한 考察, 韓國營養學會誌, 5(4): 161~168, 1972.

11) 韓仁圭, 韓國人의 食品消費構造—그 現況과 改善展望, 韓國營養學會誌, 11(2): 1~5, 1978.

12) 印慶仙, 女學生의 中高學校時의 身體發育樣相, 公衆保健雜誌, 14(1): 111~118, 1977.

13) 朴明洵, 國民保健調查의 조사결과, 東亞日報, 6.26., 1980.

%에서 69.4%, 그리고 36.2%로 크게 적어진 예이다.

한편 단독문항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크게 틀린빈도가 많아진 문항은 “생선은 두뇌가 좋아지

는 식품이다”로 最低 女子中学 1 年の 경우 17.5%이던 것이 女子高等学校 3 年에는 最高 65.9%로 매우 높았다.

이와같은 食品營養의 知識 및 態度에 関한 25 문항

〈표 4〉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식품영양에 그릇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학년별분포

단위 : 名

학년 그릇된 지식	중			고			총계		
	1	2	3	1	2	3	중	고	계(%)
1) 오답수									
0-5/25(문항)	26	5	25	13	15	42	56	70	126(7.5)
6-11/25	251	251	180	225	194	211	168	656	1229(72.7)
12-18/25	84	71	75	40	42	22	230	104	334(19.8)
계	361	361	325	247	268	232	942	747	1689(100.0)
2) 백분율									
0-5/25(문항)	20.63	3.97	19.84	10.32	11.90	33.33	44.44	55.56	100.0
6-11/25	20.42	14.65	18.31	15.79	17.17	13.67	53.38	46.62	100.0
12-18/25	25.15	21.26	22.46	11.98	12.57	6.59	68.86	31.14	100.0
계	21.37	15.16	19.24	14.62	15.87	13.74	55.77	44.23	100.0
3) 평균빈도/25문항									
평균문항	9.51	9.95	9.59	9.16	1.18	8.05	9.66	8.82	9.29
(%)	(38.04)	(39.8)	(38.36)	(36.64)	(36.72)	(32.2)	(38.64)	(35.28)	(37.16)
표준편차	2.77	2.53	2.71	2.38	2.40	2.66	2.67	2.43	2.62

• $x^2=11.1041$, $df=4$.

$P < 0.05$

$x^2=32.0999$, $df=4$.

$P < 0.01$

$x^2=32.6134$, $df=2$.

$P < 0.01$

〈표 5〉 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식품영양에 대한 그릇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령별빈도

단위 : 名

나이 그릇된 지식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1) 오답수										
0-5/25(문항)	1	17	24	12	19	35	7	7	1	126
6-11/25	19	161	179	227	219	208	158	54	4	1229
12-18/25	8	54	72	70	55	42	23	8	2	334
계	28	232	261	321	286	269	216	69	7	1689
2) 백분율										
0-5/25(문항)	0.79	13.49	7.94	19.05	9.52	15.08	27.78	5.56	0.79	100.0
6-11/25	1.55	13.10	14.56	18.47	17.82	16.92	12.86	4.39	0.33	100.0
12-18/25	2.40	16.17	21.56	20.96	16.48	12.57	6.89	2.40	0.60	100.0
계	1.66	13.74	15.45	19.01	16.93	15.93	12.79	4.09	0.41	100.0
3) 평균빈도/25문항										
평균문항	9.93	9.48	9.93	9.45	9.44	9.01	8.35	8.80	7.14	9.29
(%)	(39.72)	(37.92)	(39.72)	(37.8)	(37.76)	(36.04)	(33.4)	(35.2)	(28.56)	(37.16)
표준편차	2.67	2.83	2.59	2.66	2.30	2.37	2.71	2.63	3.91	2.62

• $x^2=74.2567$,

$df=16$.

$P < 0.01$.

에 대하여 調査対象者인 女學生들은 0에서부터 18개 문항의 빈도로 틀리고 있었는데 이 틀린 정도를 0—5 문항(정답율 80—100点), 6—11 문항(정답율 76—56点), 과 12—18 문항(정답율 52—28点)으로 分類하여 学年과 나이별로 살펴본 것이<표4>와<표5>이다. <표4>에서 보면 女子中學生의 平均틀린문항은 25문항중 9.66문항(38.64%)이고 女子高等學生은 平均 8.82문항(35.28%)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표2>의 각 문항별 내용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平均틀린빈도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 統計의으로 매우 有意한 結果로 나타나고 있는 女子高等學生의 경우($P<0.01$), 80点이상 정확히 맞히고 있는 정도(25문항중 틀린 빈도 0~5 문항)는 여고 1년의 10.32%에서 여고 3년에 33.33%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정답율이 76~56点(틀린빈도 6~11 문항)인 경우 여고 3년이 13.67%인 것이 女中 1年是 20.42%이고, 52~28点(틀린빈도 12~18 문항)인 경우 女高 3년이 6.59%이고 女中 1年是 25.15%인 것처럼 低学年에 이를수록 낮은 정답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라 살펴본<표5>에서도 같은 바였다. 즉 25문항에 대해 平均 틀린 문항의 빈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어진 것, 과 같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세에서 平均 틀린 빈도는 25문항중 9.93문항(39.7%)이던 것이 16세에서는 平均 9.01문항(36.04%)이고 그 이후부터는 크게 줄어 19세가 되며 平均 7.14문항(28.56%)의 틀린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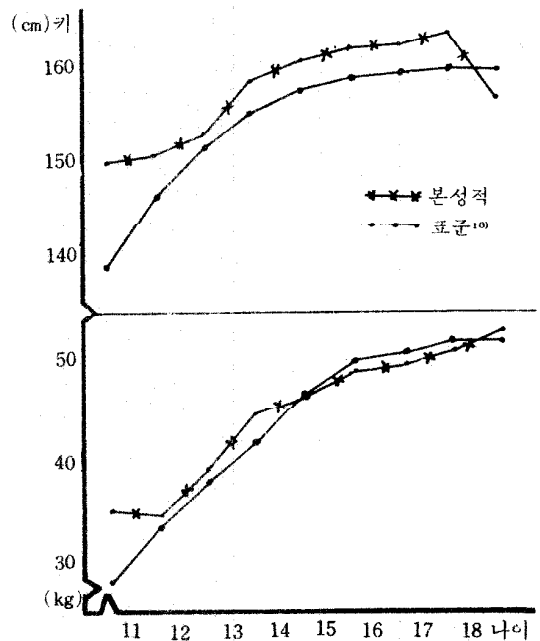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같은 결과도 총 1689명의 조사대상자인 女學生들이 모두 15,703의 틀린 답변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女學生은 적어도 25문항중 10문항 이상을 틀린 셈인데 이는 37.16%나 되는 결코 낮지않은 식품영양지식에 관한 그릇된 健康情報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本調査와는 다른 視点에서 조사된 것이지만 地域社会 主婦를 対象으로 한 李貞遠¹⁴⁾ 등의 연구에서는 16문항의 식품영양에 관한 조사에서 주부들이 나타낸 平均 틀린 빈도는 3 문항(19%)이었고, 朴明洵¹⁵⁾ 등의 조사에서는 15문항중 平均 틀린문항이 5.5문항으로 36.7%이었음을 参考한다면 女學生들은 主婦들

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식품영양지식에 대한 그릇된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主婦의 食品營養에 對한 知識이나 關心度는 실제로 子女 및 家庭의 食品營養生活實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까닭에 식품영양에 관해 主婦들이 나타내는 關心度는 높지만 그 知識은 상기한 바와 같이 낮기 때문에 90%이상 되는 主婦들의 매스컴 접촉을 效果的으로 活用해야한다고 朴明洵¹⁶⁾등과 曹基¹⁷⁾은 提言하고 있다.

学年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히 16세를 전후하여 女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食品營養에 대한 그릇된 知識 및 態度의 程度는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이 뚜렷한 것은 학년이 높아짐에 올바른 知識이 習得되는 學習過程의 結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内容面에서 보면 주로 비타민 및 채소에 관한 문항과 고단백식품에 대한 문항 및 기타문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의 경우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식품영양에 대한 틀린빈도는 더욱 많아지고 있는가하



<그림> 나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키와 몸무게

- 14) 金命鎬, 보건과목 교육내용에 관한 조사연구—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대한의학협회지, 13(5): 421~431, 1970.
- 15) 김모임, 初中高等學校 教育에 健康教育設定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간호, 3: 19~35, 1976.
- 16) 朴明洵 외 3人, 一部 江原道 農村就學前 어린이의 營養調査, 대한보건협회지, 5(2): 55~71, 1979.
- 17) 曹基, 地域社会 營養教育 媒体의 評價, 대한간호학회지, 4(1): 20~37, 1978.
- 18) 韓堧진용정, 국민표준체위 조사결과, 동아일보 6. 26. 1980

면 女子中學生과 女子高等學校生의 差異가 비교적 컸던 항목인 것이 注目된다.

女學生들이 現在 自己의 키와 몸무게를 기록한 내용을 나이에 따라 평균값을 구하여 표준체위와 比較 圖式한 <그림>에서 보면 조사대상자인 女學生들의 體重곡선은 표준체위와 큰 차가 없지만 키는 15세 이상의 곡선이 표준체위보다 상당히 웃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나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에서 중학생보다 여고생의 경우 훨씬 더 많이 틀리고 있는 것은 이들의 關心의 方向을 나타내주는 당연한 결과이다. 더욱이 印度仙¹⁹⁾이나 最近의 公認進흥청²⁰⁾의 標準位體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남녀의 思春期는 10~14才이며 女學生의 體型이 가장 잘 발달되는 시기는 16~24才의 時期라고 指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10~14才에는 急増하는 身體的인 營養要求와 더불어 16才 以後부터는 女學生들은 身身의 體型에 대한 關心의 増大가 현저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學問中心의 敎科學習을 為主로하므로 健康情報로서인 食品營養에 관한 知識은 과학, 가정 및 체육등의 敎科書의 일부에서 成長에 필요한 營養素 및 영양섭취의 결핍으로 인한 장애 등과 같은 내용과, 범국가적인 시책에 따른 食生活改善과 關連되는 내용이 主要골자²¹⁾가 되는 까닭에 이들이 관심을 갖고 必要로 하는 내용은 도외시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生活經驗敎育으로서 가장 效果있는 接近方法이 되고 있는 女學生들을 爲한 保健敎育이 內容中에는 이상과 같은 事實이 反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方向으로의 行動變化를 가져오도록 하는 學敎保健敎育의 最終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基礎的인 段階이기 때문이다.

IV. 要約 및 結論

미국의 플로리다주 보건국의 관계자들이 마련한 40 문항의 食品知識에 關한 正誤(True-False)검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認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25문항을 골라 우리나라 女子中高等學校生을 對象으로 그 틀린빈도를 조사함으로써 學校에서의 保健敎育을 生活經驗敎育으로써 잘 活用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고자 本調査를 실시한 바 統計的으로 매우 유의한 結果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女中 1年에서부터 女高 3年에 이르기까지 各學年別로 서울의 1 개교에서 3 學級씩 농촌의 1 개교에서 2 學級씩을 양호교사가 任意로 선정하여 設問紙調査에 임한 바 分析對象은 총 1689名이었다.

調査期間은 1980.7.18~7.19이었으며 조사된 資料는 電算化處理하였다.

1. 食品營養에 關한 25 문항에 대해 女子中高等學校生들이 平均 틀린 문항은 9.29문항으로 37.16%이었다.

2. 學年이 높아질수록 食品營養에 關한 틀린 문항의 頻度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 女子中學生의 平均 틀린 문항은 25문항중 9.66문항(38.64%)이고 女子高等學校生의 平均 틀린문항은 25문항중 8.82문항(35.28%)으로 나타나고 있다. ($P < 0.01$)

3.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문항은 (1) 화학조미료를 많이 使用하는 것은 몸에 좋지않다(86.7%), (2) 시금치에는 고농도의 비타민과 무기염류가 많다.(82.8%), (3)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71.3%)였다.

19) 印度仙, 女學生의 中高等學校時의 身體發育樣相, 公衆保健雜誌, 14(1): 111-118, 1977.

20) 公認進흥청, 國民 표준체위조사결과, 동아일보 6. 26. 1980.

21) 金命鎭, 보건과목 敎育내용에 關한 조사연구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敎재를 중심으로 대한의학협회지, 13(5): 421-431, 1970.

22) 김모임, 初中高等學校 敎育에 健康敎育設定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간호, 3: 19-35, 1976.

참 고 문 헌

- 공업진흥청, 국민표준제취 조사결과, 東亞日報, 6.26., 1980.
- 金命鎬, 보건과목 교육내용에 관한 조사연구—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재를 중심으로—대한의학협회지, 13(5): 421~431, 1970.
- 金命鎬, 健康에 관한 社会教育의 現況과 課題, 大韓保健協會誌, 4(1): 4~9, 1978.
- 김모임, 初中高等学校 教育에 健康教育設定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간호, 3: 19~35, 1976.
- 朴明洵 外 2 人, 農村保健事業地域의 어린이 營養實態調査, 大韓保健協會誌, 6(1): 109~121, 1980.
- 朴明洵 外 3 人, 一部 江原道 農村就學前 어린이의 營養調査, 大韓保健協會誌, 5(2): 55~71, 1979.
-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1978年度 校保健.
- 신공범, 이광자, 일부 농촌중학생의 건강흥미분석—수동중학교 건강교육내용 개발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10(1): 21~26, 1980.
- 李貞遠·弁壽美, 地域社会 營養教育媒体의 評價: 국민건강독본, “건강을 지키시다”에 대하여, 大韓保健協會誌, 4(1): 17~28, 1978.
- 印慶仙, 女學生의 中高等学校時의 身體發育樣相, 公衆保健雜誌, 14(1): 111~118, 1977.
- 曹英, 地域社会營養教育媒体의 評價, —슬라이드 “營養과 健康에 대하여—”, 大韓保健協會誌, 4(1): 29~37, 1978.
- 채범석·신영무, 우리나라 食品消費變化에 對한 考察, 韓國營養學會誌, 5(4): 161~168, 1972.
- 韓仁圭, 韓國人의 食品消費構造—그 現況과 改善展望, 韓國營養學會誌, 11(2): 1~5, 1978.
- 咸洛源, 公衆保健과 保健教育, 春潮社, 1969.
- Byrd, Health, Saunders 4thed., pp.329~339, 1966.

A Survey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Food and Nutrition Held by Schoolgirls in Korea

Jung, Moon Hee *

Lee, Myeong Sook **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a practical school health education by grasping the extent to what schoolgirls in Korea made out the conceptions for nutrition often misunderstoo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schoolgirls in the 3 classes per grade in a school in Seoul and in the 2 classes in a school in a rural area from the 1st grade in the middle school to the 3rd grade in the high school; which were selected at random by school nurses.

96.6% of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otal 1,689) and by means of computational treatment of them the author obtained statistically highly significant results.

1. on the average schoolgirls had incorrect conceptions on 9.29 items (37.16%) of total 25 items which are often misunderstood.
2. Schoolgirls in higher grades revealed misconceptions on less items than those in lower ones : on 9.66 items in the case of those in the middle school and on 8.82 items in the case of those in the high school.
3. Three major misconceptions of total 25 ones were as follows,
 - (1) Chemical additives are dangerous in food (86.7%).
 - (2) Spinach is a highly concentrated source of vitamins and minerals (82.8%).
 - (3) The more vitamins you take the better (71.3%).

*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